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0호

2024년 3월

비싼 병원비에 놀라다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6:42-75)	전 준 덕	3
요한계시록 듣기(56)	손 현 섭	19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땅을 창조한다	연 창 호	27
바울 사도 소전 4	최 정 일	32
희망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정 주	48
오므리왕	조 규 철	53
정의, 누가 지키는가?	최 제 현	59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68
2024 봄 전국집회 안내	편 집 실	70
이런 일 저런 일	편 집 실	71

성서신애사

비싼 병원비에 놀라다

나는 오래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고생하였다. 3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 하필 처가에 가기로 한 날이어서, 아내에게 가기 싫어 께병 부리느냐는 억울한 소리마저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온갖 치료를 하고, 허리근육운동을 하며 견뎠는데 기어이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나 보다. 왼쪽 다리에 마비가 오고, 통증이 극심하여 절뚝이며 걷는 지경이 된 것이다.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며, 결국 내시경 수술로 그 부분을 제거하기로 했다.

일사천리로 검사가 진행되고 수술 결정을 하고 나니, 상담실로 안내하였다. 의사가 말하기 곤란한 비용 관련 이야기를 듣는 곳이다. 수술시 유의점을 설명한 다음, 비급여 항목이 줄줄이 적힌 명세서를 척 내밀었다. 놀랍게도 내시경 수술 비급여, 재활치료 항목 대부분 비급여, 특별히 효과가 좋다는 약물 비급여, 허리 보조기 비급여 등등.

비난을 피하기 위함인지 보험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수술 치료와 약을 써도 된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돈이 없으면 더 오래 걸리고 더 아픈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다. 예전에는 ‘특진제도’가 환자를 울리더니, 참! 어쨌든 일주일 입원치료비가 800만 원 내외라고 알려주었다.

‘헉! 이렇게 비싸다고?’

한국만큼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드물다는 칭찬을 수없이 들어온 터에 거액 요구를 들으니, 그 칭찬이 맞나 싶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아들 며느리가 이걸 썬 거라며, 미국이라면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개인 부담이 몇천만 원 나왔을 거라고 입을 모으니 그렇다 할 수밖에. 하지만 강화도 농장에서 만났던 노인들이 왜 그렇게 아픈 몸으로 참고 지냈는지 이해가 가는 병원비였다. 그나저나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내 예비비 통장이 텅 비게 생겼다. 아이쿠! (손현섭)

* 수술한 날부터 통증과 저림 현상이 사라져 감사하고 있습니다.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기록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한 복된 소식)

마 26:42-75

전 준 덕

42절 : Πάλιν ἐκ δευτέρου ἀπελθὼν προσηύξατο, λέγων, Πάτερ μου, εἰ οὐ δύναται τοῦτο τὸ ποτήριον παρελθεῖν ἀπ’ ἐμοῦ, ἐὰν μὴ αὐτὸ πίω,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사역 : 다시 두 번째로 가신 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 지시여!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 1. προσηύξατο : προσεύχομαι(πρός+εὔ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 1과, 중간태, 직설법, 단수, 3인칭(5:44절 참조).

43절 : καὶ ἐλθὼν εὗρίσκει αὐτοὺς πάλιν (εὔρεν αὐτούς) καθεύδοντας, ἦσαν γὰρ αὐτῶν οἱ ὀφθαλμοὶ βεβαρημένοι.

사역 : 다시 오신 후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눈이 아주 피곤하였습니다.

주) 1. βεβαρημένοι : βεβέω(단축동사) (억압하다, 압제하다, 짐을 지우다, 위에서 내리 누르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주격.

44절 : καὶ ἄφεις αὐτούς, ἀπελθὼν πάλιν (ἀπελθὼν) προσηύξατο ὁ ἐκ τρίτου, τὸν αὐτὸν λόγον εἰπών. (πάλιν.)

사역 : 그래서 제자들을 그대로 둔 채 다시 가신 후 세 번째 기도하셨

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1. τρίτου : τρίτος의 남성, 단수, 소유격(17:23절 참조).

45절 : τότε ἔρχεται πρὸς τοὺς μαθητὰς αὐτοῦ,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Καθεύδετε τὸ λοιπὸν καὶ ἀναπαύεσθε· ἰδοὺ, ἤγγικεν ἡ ὥρα, καὶ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παραδίδοται εἰς χεῖρας ἀμαρτωλῶν.

사역 : 그리고 나서 자키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고 쉬시오. 보시오. 때가 가까이 왔소. 자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소.

주) 1. καθεύδετε : καθεύδω(κατά+εὕδω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9:24절 참조).

2. λοιπὸν : λοιπός의 중성,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22:6절 참조)

3. ἀναπαύεσθε : ἀναπαύω(ἀνά+παύω의 합성동사) (쉬게 하다, 쉼을 주다, 원기를 돋우다,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중)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명령법, 복수, 2인칭.

46절 : ἐγείρεσθε, ἄγωμεν· ἰδοὺ, ἤγγικεν ὁ παραδιδούς με.

사역 : 여러분 일어나시오. (이제) 우리 갑시다. 보시오. 나를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소.

주) 1. ἐγείρεσθε : ἐγείρω(유음동사)의 현재, 중(수), 명령법, 복수, 2인칭(2:20절 참조).

2. ἄγωμεν : ἄγω의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14:6절 참조).

47절 : Καὶ ἔτι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ἰδοὺ, Ἰούδας εἷς τῶν δώδεκα ἦλθε, καὶ μετ’ αὐτοῦ ὄχλος πολὺς μετὰ μαχαίρων καὶ ξύλων, ἀπὸ τῶν ἀρχιερέων καὶ πρεσβυτέρων τοῦ λαοῦ.

사역 : 이예수스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시오. 열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우다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습니다.

주) 1. μαχαίρων : μάχαιρ(검, 칼, 전쟁)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 명사의 복수, 소유격.

2. ξύλων : ξύλον(나무, 장대, 몽둥이, 나무착고, 교수대, 십자가)의 제2변화 명상 속한 중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3. μετὰ μαχαίρων καὶ ξύλων : (검과 몽둥이를 들고)의 숙어.

48절 : ὁ δὲ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σημεῖον, λέγων, Ὃν ἂν φιλήσω, αὐτός ἐστι· κρατήσατε αὐτόν.

사역 : 그런데 이예수스님을 넘겨준 자가 한 암호를 주었는데 말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놈이다. 여러분은 그 놈을 체포하십시오” 하고

주) 1. φιλήσω : φιλέω(단축동사) (사랑하다, 좋아하다, 입 맞추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가정법, 단수, 1인칭.

2. κρατήσατε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9:25절 참조).

49절 : καὶ εὐθέως προσελθὼν τῷ Ἰησοῦ εἶπε, Χαῖρε, ῥαββί· καὶ κατεφίλησεν αὐτόν.

사역 : 그리고 바로 이예수스님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

하셨습니까?” 하고 이예수스님을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 1. χαῖρε : χαίρω(유음동사)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단수, 2인칭 (5:12절 참조).

2. κατεφίλησεν : καταφιλέω(κατά+φι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입 맞추다, 사랑으로 입 맞추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50절 : ὁ δὲ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ῷ, Ἐταῖρε, ἐφ’ ᾧ (ὁ) πάρει· Τότε προσελθόντες ἐπέβαλον τὰς χειρας ἐπὶ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ἐκράτησαν αὐτόν.

사역 : 그러나 이예수스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대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소? 그러자 저들은 이예수스님께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주) 1. ἔταῖρε : ἑταῖρος의 단수, 호격(11:16절 참조).

2. πάρει : πάρειμι(παρά+εἰμί의 합성동사) (곁에 있다, 이르다, 왔다, ~을 가지고 있다)라는 ~μι동사의 현재, 직설법, 단수, 2인칭.

3. ἐπέβαλον : ἐπιβάλλω(ἐπί+βά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 (던지다, 었다, 입다, 손을대다, 안수하다, (자) 부딪치다, 떨어지다, 속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4. ἐκράτησαν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9:25절 참조).

51절 : καὶ ἰδοὺ, εἷς τῶν μετὰ Ἰησοῦ, ἐκτείνας τὴν χεῖρα ἀπέσπασεν τὴν μάχαιραν αὐτοῦ, καὶ πατάξας τὸν δοῦλον τοῦ ἀρχιερέως ἀφεῖλεν αὐτοῦ τὸ ὠτίον.

사역 : 그런데 보십시오. 이예수스와 함께 있는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 손을 내민 후 자기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주) 1. ἀπέσπασεν : ἀποσπάω(ἀπό+σπ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빼내다, 뽑다, 떼어놓다 (수) 갈라서다, 떠나다, 물려서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πατάξας : πατάσσω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26:31절 참조).

3. ὡτίον(οὔς의 지소사) : (귀)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52절 : τότε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Ἀπόστρεψόν σου τὴν μάχαιραν (σου) εἰς τὸν τόπον αὐτῆς· πάντες γὰρ οἱ λαβόντες μάχαιραν ἐν μαχαίρᾳ(μαχαίρη) ἀπολοῦνται.

사역 : 그때에 이예수스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오. 이유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될 것이요.

주) 1. ἀπόστρεψον : ἀποστρέφω(ἀπό+στρέφω의 합성동사) (돌이키다, 잘못 인도하다, 그릇 인도하다, 이간시키다, 제거하다, 옮기다, 넣다, 뽑다 (자) 돌아서다 (중) 돌아서다, 떠나다, 거절하다, 돌보지 않다, 시중들지 않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단수, 2인칭.

2. ἀπολοῦνται : ἀπόλλυμι(ἀπό+ᾠλλυμι의 합성동사)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2:13절 참조).

53절 : ἡ δοκεῖς ὅτι οὐ δύναμαι ἄρτι παρακαλέσαι τὸν πατέρα μ

ου, καὶ παραστήσει μοι(ἄρτι) πλείους(πλείω) ἢ δώδεκα λεγεῶνας
(λεγιῶνας) ἀγγέλων;

사역: 자 그대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여 천사들의 열두
레기온 보다 더 많이 내게 불러 세울 수 없는 줄로 생각하오?

주) 1. δοκεῖς : δοκ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
(6:7절 참조).

2. παρακαλέσαι : παρακαλέω(παρά+κα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
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2:18절 참조).

3. λεγεῶνας : λεγεών(레기온 : 6000명으로 편성된 로마군의 단위)의
복수, 대격.

4. πλείους : πλείων, ονος, ὁ, ἡ (더 많은, 더 큰, 더 높은, 더 귀한,
더 오랜, 대다수, 대부분(부사) : 더, 더욱더, 더 많이)

5. παραστήσει : παρίστημι(παρά+ἵστημι의 합성동사) (옆에 놓다, 맡
기다, 바치다, 제공하다, 나타내다, 보이다, 알리다, 밝히다, 만들다, ~되게
하다, 앞에 세우다, 앞에 끌어내다, (중) 나서다, 오다, 가까이 가다, 돕다,
도우려 오다, 편을 들다, 가까이 서 있다)라는 ~미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
설법, 단수, 3인칭.

54절 : πῶς οὖν πληρωθῶσιν αἱ γραφαί ὅτι οὕτως δεῖ γενέσθαι;

사역: 그러면 성경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이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소?

주) 1. πληρωθῶσιν : πληρόω(단축동사)의 제1과, 수동태, 가정법, 복
수, 3인칭(2:15절 참조).

2. γραφαί : γραφή의 복수, 주격(21:42절 참조).

3. γενέσθαι : γίνομαι의 제2과, 중간태, 부정사(1:22절 참조).

55절 : ἐκείνῃ τῇ ὥρᾳ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τοῖς ὄχλοις, Ὡς ἐπὶ λῆσιν ἦν ἐξήλθετε (ἐξήλθατε) μετὰ μαχαίρων καὶ ξύλων συλλαβεῖν με· καθ' ἡμέραν πρὸς ὑμᾶς (ἐν τῷ ἱερῷ) ἐκαθεζόμεν διδάσκων ἐν τῷ ἱερῷ, καὶ οὐκ ἐκρατήσατέ με.

사역 : 그때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강도나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나왔소? 내가 성전에 앉아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은 나를 잡지 않했소.

주) 1. λῆσιν : ληστής의 단수, 대격(21:13절 참조).

2. ἐκαθεζόμεν : καθεζομαι의 미완, 중(수), 직설법, 단수, 1인칭(4:16절 참조).

3. ἐκρατήσατε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9:25절 참조).

56절 : τοῦτο δὲ ὅλον γέγονεν ἵνα πληρωθῶσιν αἱ γραφ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Τότε οἱ μαθηταὶ πάντες ἀφέντες αὐτὸν ἔφυγον.

사역 :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두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스승을 버리고 도망 갔습니다.

57절 : Οἱ δὲ κρατήσαντες τὸν Ἰησοῦν ἀπήγαγον πρὸς Καϊάφαν τὸν ἀρχιερέα, ὅπου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συνήχθησαν.

사역 : 이제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이아파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주) 1. ἀπήγαγον : ἀπάγω(ἀπό+ἄγω의 합성동사)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끌어내다, 잘못 따라가다, 끌려가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58절 : Ὁ δὲ Πέτρος ἠκολούθει αὐτῷ ἀπὸ μακρόθεν, ἕως τῆς αὐλῆς τοῦ ἀρχιερέως· καὶ εἰσελθὼν ἔσω ἐκάθητο μετὰ τῶν ὑπηρετῶν ἰδεῖν τὸ τέλος.

사역 : 그런데 페트로스는 이에수스님을 멀리 떨어져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결과를 알아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주) 1. μακρόθεν(부) : (멀리서, 멀리 떨어져서, 먼 곳으로부터, 멀리서부터)

2. ἀπὸ μακρόθεν : (멀리 떨어져서)의 숙어

3. ἕως(장소의 부사) : (안으로, 안에, 내부에)

4. ὑπηρετῶν : ὑπηρέτης(종, 하인, 사환, 조수, 직원, 섬기는 자)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59절 : οἱ δὲ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καὶ τὸ συνέδριον ὅλον ἐζήτουν ψευδομαρτυρίαν κατὰ τοῦ Ἰησοῦ, ὅπως αὐτὸν θανατώσωσι,

사역 :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공회원들이 이에수스님을 어떤 수단으로 해서 죽이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 1. συνέδριον : (집회, 공회, 회의, 의회, 신헤드린, 유대인의 최고 회의)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2. ἐζήτουν : ζητέω(단축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13절 참조).

3. ψευδομαρτυρίαν : ψευδομαρτυρία(ψευδής+μαρτυρία의 합성어)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거짓 증명)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수, 대격.

4. θανατώσῃσι : θανατώω(단축동사) (죽게하다, 죽이다, 죽는데 내어
주다)라는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60절 : καὶ οὐχ εὗρον· καὶ πολλῶν(προσελθόντων) ψευδομαρτύρ
ων προσελθόντων, οὐχ εὗρον.

사역 : 그러나 저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들이 많
이 나왔으나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주) 1. πολλῶν : πολλύς의 남성, 복수, 소유격(3:7절 참조).

2. ψευδομαρτύρων : ψευδομάρτυρ(ψευδής+μάρτυς의 합성어) (거짓
증언, 거짓 증거)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3. προσελθόντων : προσέρχομαι(πρός+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
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4:11절 참조).

61절 : ὕστερον δὲ προσελθόντες δύο ψευδομάρτυρες εἶπον, (εἶ
παν) Οὗτος ἔφη, Δύναμαι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αὸν τοῦ θεοῦ, καὶ διὰ
τριῶν ἡμερῶν οἰκοδομῆσαι αὐτόν,

사역 : 그때에 두 거짓 증언자가 마침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삼일동안 그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장담하였나이다.

주) 1. ψευδομάρτυρες : ψευδομάρτυρ(ψευδομάρτυς도 같음)(ψευδής
+μάρτυς의 합성어)(거짓 증언, 거짓 증거)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

사의 복수, 주격.

2. ἔφη : φημί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4:7절 참조).

3. καταλῦσαι : καταλύω(κατά+λύ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5:17절 참조).

4. οἰκοδομῆσαι : οἰκοδομ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16:18절 참조).

62절 : καὶ ἀναστὰς ὁ ἀρχιερεὺς εἶπεν αὐτῷ, Οὐδὲν ἀποκρίνη; τί οὗτοί σου καταμαρτυροῦσιν;

사역 : 그러자 대제사장은 일어난 후 이예수스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너 어찌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한 불리한 증언하고 있는데 어 떠느냐”

주) 1. καταμαρτυροῦσιν : καταμαρτυρέω(κατά+μαρτυρ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증거하다, 반대 증언하다, 불리한 증언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63절 : Ὁ δὲ Ἰησοῦς ἐσιώπα.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ἀρχιερεὺς εἶπεν αὐτῷ, Ἐξορκίζω σε κατὰ τοῦ θεοῦ τοῦ ζῶντος, ἵνα ἡμῖν εἴπῃς, εἰ σὺ εἶ ὁ Χριστό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사역 : 그러나 이예수스님은 일체 말씀 한마디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이예수스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케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이라면 우리에게 말해라”

주) 1. ἐσιώπα : ἐσιώπάω(단축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3

인칭(20:31절 참조).

2. ἐξορκίζω : (맹세케 하다, 간청하다, 간원하다, 부리다, 귀신을 내쫓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64절 :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Σὺ εἶπας, πλὴν λέγω ὑμῖν, ἀπ' ἃ ρτι ὄψεσθ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καθήμενον ἐκ δεξιῶν τῆς δυνάμεως καὶ ἐρχόμενον ἐπὶ τῶν νεφελῶν τοῦ οὐρανοῦ.

사역 : 이예수스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여러분께 말하오. 이제부터 여러분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यो”

주) 1. ὄψεσθε : ὁράω(단축동사)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복수, 2인칭 (5:8절 참조).

2. δυνάμεως : δύναμις의 단수, 소유격(6:13절 참조)

3. νεφελῶν : νεφελή(구름)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65절 : Τότε ὁ ἀρχιερεὺς διέρρηξε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λέγων Ὅτι ἐβλασφήμησε· τί ἔτι χρεῖαν ἔχομεν μαρτύρων· ἴδε, νῦν ἠκούσατε τὴν βλασφημίαν αὐτοῦ

사역 :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자 저가(신성을) 모독하였다. 우리가 무엇이 더 증거가 필요하리요? 보시오. 지금 여러분은 저놈의 모독의 발언을 들었도다.

주) 1. διέρρηξε : διερρήσσω(διά+ρήσσω의 합성동사)(찢다, 깨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ἰμάτια : ἰμάτιον의 복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5:40절 참조)

3. ἐβλασφήμησεν : ἐβλασφημ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9:3절 참조)

4. βλασφημίαν : βλασφημία의 단수 대격(12:31절 참조).

66절 : τί ὑμῖν δοκεῖ; οἱ δὲ ἀποκριθέντες εἶπον, (εἶπαν,) "Ἐνοχος θανάτου ἐστίν.

사역 :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민중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주) 1. ἔνοχος : (복종하는, 순종하는, 예속된, 죄가 있는, 해야 하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67절 : Τότε ἐνέπτυσαν εἰς τὸ πρόσωπον αὐτοῦ, καὶ ἐκολάφισαν αὐτόν, οἱ δὲ ἐρράπισαν, (ἐράπισαν)

사역 :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이예수스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그것도 부족하여)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주) 1. ἐνέπτυσαν : ἐμπτύω(ἐν+πτύω의 합성동사) (침뱉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 ἐκολάφισαν : κολαφίζω(주먹으로 치다, 때리다, 학대하다, 벌을 주다, 큰 고통을 주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3. ἐρράπισαν : ῥαπίζω(몽둥이로 치다, 때리다, 손바닥으로 치다, 뺨을 때리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68절 : λέγοντες, Προφήτευσον ἡμῖν, Χριστέ, τίς ἐστιν ὁ παίσις σε;

사역 : (저들은 일제히) 조롱하면서 크리스토스야 네 놈을 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한번 맞추어보라.

주) 1. προφήτευσον : προφητεύω(πρό+φημί의 합성동사)(예언하다, 예고하다, 선포하다, 미래 일을 예언하다, 알아 맞추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단수, 2인칭.

2. παίσας : παίω(치다, 때리다, 상처내다, 찌르다, 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69절 : Ὁ δὲ Πέτρος ἔξω ἐκάθητο (ἔξω) ἐν τῇ αὐλῇ, καὶ προσῆλθεν αὐτῷ μία παιδίσκη, λέγουσα, Καὶ σὺ ἦσθα μετὰ Ἰησοῦ τοῦ Γαλιλαίου.

사역 : 그런데 페트로스가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 있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한 여종이 페트로스에게 다가와서는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아에서 이에수스와 함께 온 사람이지요.”

주) 1. αὐλῇ : αὐλή(안뜰, 마당, 농장, 대궐, 궁전, 관저, 집)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여격.

2. παιδίσκη(παῖς의 지소사) : (소녀, 어린 여종, 여종)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3. ἦσθα : εἰμί의 미완, 직설법, 단수, 2인칭(ἦς 대신 쓰이고 있음). (1:18절 참조)

70절 : Ὁ δὲ ἠρνήσατο ἔμπροσθεν πάντων, λέγων, Οὐκ οἶδα τί λέγεις.

사역 : 그러자 페트로스는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말하기를 나

는 자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주) 1. ἡρνήσατο : ἁρνέομαι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단수, 3인칭 (10:33절 참조).

71절 : Ἐξελθόντα δὲ αὐτὸν εἰς τὸν πυλῶνα εἶδεν αὐτὸν ἄλλη,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ἐκεῖ, Καὶ οὗτος ἦν μετὰ Ἰησοῦ τοῦ Ναζωραίου.

사역 : 또 그가 입구 쪽으로 나갔을 때에 한 다른 여종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조라 이오스 이에수스와 함께 있던 자입니다.

주) 1. ἐξελθόντα : ἐξέρχομαι(ἐκ+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대격(2:6절 참조).

2. πυλῶνα : πυλών(대문, 입구, 정문, 현관, 행랑)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대격.

72절 : καὶ πάλιν ἡρνήσατο μεθ'(μετὰ) ὄρκου, Ὅτι οὐκ οἶδα τὸν ἄνθρωπον.

사역 : 또 다시 페트로스가 맹세코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

주) 1. ὄρκου : ὄρκος 의 단수, 소유격(5:33절 참조).

73절 : Μετὰ μικρὸν δὲ προσελθόντες οἱ ἐστῶτες εἶπον τῷ Πέτρῳ, Ἀληθῶς καὶ σὺ ἐξ αὐτῶν εἶ· καὶ γὰρ ἡ λαλιά σου δῆλόν σε ποιεῖ.

사역 : 그런데 조금 지나 (겔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페트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도 저들과 한패지요. 당신의 말소리가 당신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소이다.

주) 1. ἐστώτες : ἴστημι의 제2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2:9절 참조).

2. καὶ σὺ ἐξ αὐτῶν εἶ : (너도 그들과 한패다,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다)의 속어.

3. λαλιά : (말, 연설, 말씨, 말투, 언어)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 명사의 단수, 주격.

4. δῆλον : δῆλος(분명한, 명백한, 확실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대격.

74절 : Τότε ἤρξατο καταναθεματίζειν(καταθεματίζειν) καὶ ὀμνύειν, ὅτι οὐκ οἶδα τὸν ἄνθρωπον. καὶ εὐθέως ἀλέκτωρ ἐφώνησε.

사역 : 그래서 그는 저주와 맹세를 동시에 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주) 1. καταναθεματίζειν : καταναθεματίζω(κατά+ἀναθεματίζω = ἀν+αθεματίζω의 이중 합성동사) (저주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2. ὀμνύειν : ὀμνύω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5:34절, 23:20절).

75절 : καὶ ἐμνήσθη ὁ Πέτρος τοῦ ῥήματος τοῦ Ἰησοῦ εἰρηκότος αὐτῷ, ὅτι πρὶν ἀλέκτορα φωνῆσαι, τρις ἀπαρνήσῃ με καὶ ἐξελθὼν ἔξω ἔκλαυσε πικρῶς.

사역 : 그러자 페트로스는 이예수스님의 말씀이 자키에게 “닭이 울기

전 그대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시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하게 울었습니다.

주) 1. ἐμνήσθῃ : μνησκα(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기억되다,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εἰρηκότος : ῥέω의 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2:15절 참조).

3. πικρῶς(부) : (아프게, 쓰라리게, 심하게)

【2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표지	(마24:26-51)	(마26:1-41)
표지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표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들어가자
4쪽5줄	(σύν+ἄγω의 합성동사ο)의	(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로
4쪽10줄	~ 복수, 주격	단수, 소유격
7쪽3줄	여인을	여인은
8쪽14줄	사람인 미스카리오테스	사람인 이스카리오테스
8쪽23줄	ἵστημι의 제1과	ἵστημι의 제2과
17쪽5줄	따라온	(따라온)

요한계시록 듣기 56회

(생명수의 강)

손 현 섭

또 천사가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겠으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 (22:1-5 개역개정)

1. 들어가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 21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외형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극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크기 또한 어마어마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00km라고 하였다.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도시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들, 즉 더러운 짓이나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도시의 외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는 사

람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분들이었으니 얼마나 멋진 곳일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였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성서의 최종 장면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2. 본문 살피기

1) 새 예루살렘 성안의 모습(1-2절)

성안에 들어가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강이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에스겔서 40-48장과 매우 흡사하다. 특별히 47장을 염두에 두고 서술을 하였다고 본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낙원을 보았다. 그가 본 낙원에도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하여 낙원의 사방을 둘러 흐르고 있었다. 오늘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도 같은 풍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한 생명수의 강이 도시 중앙을 가로질러 흐른다고 기록하였다.

그 강은 수정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왔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설명이다. 또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푸른 잎을 흔들거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달려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천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의 ‘설만한 물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2절은 생명나무에 관한 서술이다. 강 이편과 저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 생명나무에 관해 요한계시록보다 상세한 서술이 있는 에스겔서 47장을 보기로 한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 양쪽 강변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7절).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맏히지 않는 일이 없고,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12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일은 있는데, 이를 성안 사람들이 먹으리라는 언급이 없다. 앞서 공부한 21장에서는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하였으며, 2장에서는, 신앙의 승리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된다. 아마도 여기서는 생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유래한다는 사실로 충분하며,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상 이 모든 환경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생명나무의 존재를 처음 발견할 수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될 때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이 선악과에 이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으려 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천사들을 배치하여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성의 중앙 도로를 따라 강이 있고, 강 양편에 이 생명나무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나무는 1년에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다른 종류의 과일이 열린다. 그저 멋있는 풍경을 위한 과일이 아니므로 누구나 손을 뻗어 따먹는 과일인 것이 분명하다.

자, 상상해 보자. 넓은 중앙 도로를 따라 강이 있고, 양쪽 강가에는 푸른 나무가 있다. 나무에는 열 두 종류의 과일이 달마다 한 번씩 열려서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다. 넓은 길,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강, 과일
이 주렁주렁 열린 푸른 나무. 이 세 가지만 상상해도 풍요롭고 편안한
풍경이 떠오른다. 더구나 12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항상 완전한 하나님의
수이니,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행복한 광경을 묘
사한 게 아니겠는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사철 푸르른 그 잎은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약이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오게 될 사람들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나온 고난과 역경을 잊게 하는
나뭇잎이다.

그런데 이미 성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왜 나옴(healing)이 필요한
가? 요한은 생명수가 사람들에게 건강한 힘을 준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육체로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필
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충분하며, 그 잎의 힘으로 나옴을 얻
어 날마다 힘을 얻기 때문이다.¹⁾

학자들은 생명나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낸다. 생명나무가 한
그루인가, 강의 양쪽으로 늘어서 있을 만큼 많은가? 그 열매들은 달마다
다른 종류인가, 아니면 매달 다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 과일은 성안 사람 누구나 먹고 풍족함을 느끼게 할 것이니, 종류가
같은 다른 관계없다. 또 이미 새 예루살렘 안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
들은 다 들어와 있으니, 생명나무가 한 그루이든 여러 그루이든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단순히 새 예루살렘의 풍요로운
풍경만을 나타내는 것일까? 한병덕 선생의 이야기를 보자,

1)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Revelation, p.268.

“이 전체적인 이미지는 회복된 낙원이라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된 것이 그렇고, 생수의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고 한 창세기 2장의 세상을 살리는 네 강과 통한다. 낙원에서 쫓겨난 후 세상이라는 험난한 광야를 헤맨 지 참으로 긴 세월 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디어 본래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은 그 거민들이 세세토록 생명을 받는 상태를 에덴동산의 생명수의 강물을 한없이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섭취할 수 있다는 이미지로 묘사했다.”²⁾

2) 성안 사람들의 생활

성안에는 저주가 없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당연한 말씀이다. 더구나 그 성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성안에서 거하는 주민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4-5절을 잘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3절)³⁾

여기서 ‘그분(아우투 αυτου, 아우토αυτω)’는 기본형이 αυτος(아우토스)로 3인칭 단수이다. 또한 보좌(호 드로노스 ὁ θρόνος)도 단수이다. 그렇다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을 그 분 즉 한 분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일체이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섬기는 사람들은 ‘호이 둘로이, οι δούλοι’라고 하여 ‘종들’로

2) 한병덕, 요한계시록 58회.

3) οι δούλοι αυτου λατρευσουσιν αυτω.(그의 종들은 그를 섬길 것이다.)

나타내고 있다. 예루살렘 성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종들이라는 말이다. 성안의 백성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4절)⁴⁾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바로 죽음이었다. 하지만 시편(11:7)은 정직한 자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고 말한 바 있다. 어린 양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자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함께 지내며 드디어 창조주의 실체를 깨닫고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지배에 동참한다는 말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켜는 등불도 없고, 태양도 없다. 다시 밤이 없으니, 이런 빛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 빛을 비추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구원이다. 더 이상 밤 같은 어두움이 없으니, 그들은 영원히 밝은 낮과 같은 날들을 보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그들이 영원히 왕 노릇 하리라’ 하고, 자신이 본 환상을 보고한다. 요한은 이 왕 노릇을 하는 성도의 생활에 관심이 매우 컸다.⁵⁾ 그가 이런 ‘성도의 왕 노릇, 성도의 지배’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4) ὁρῶνται το πρόσωπον αὐτοῦ.(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5) 요한의 묵시록 하편, 사다케 아키라(佐竹 明), 647쪽.

이유가 있다. 당시 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신자들은 억압을 받고 있었다. 피지배자로서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지배자로서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지만, 요한의 이 기록을 전해 듣고 희망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굳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는 구절을 부연한 이유일 것이다. 아니, 그들뿐 아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3. 맺으며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는 창세의 때와 평행이론처럼 일치한다. 창세기의 에덴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무성하게 강의 양편에서 자란다. 생명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 강의 생명수를 빨아들여 낙원에 적절하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의 잎은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들을 낫게 한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의 고통도 죽음의 공포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은 자신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시리라. 지상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왜냐면 사람은 그분의 기록함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⁶⁾

하나님의 빛은 그들을 비추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경영할 것이다. 이 일은 참으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성서의 여기저기 수많은

6) NTD신약성서주해 요한계시록, 217-219쪽.

은 곳에서 증거한 일이다. 생각나는 몇 가지만 확인해 보자.⁷⁾

약속하신 말씀	성서
우리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요 14:2-3
우리는 육체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고전 15:35-49
우리도 예수처럼 되어 예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요한1서 3:2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고전 15장
엄청난 체험을 하리라. 그것은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고전 2:9
새로운 환경이다.	계21:1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고전 13:12, 계 21:3
우리는 새로운 정서를 갖는다. 슬픔도 아픔도 없고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계 21:4
그곳은 죽음이 없다.	계 21:4

오늘의 새 예루살렘 풍경을 끝으로, 기나긴 요한의 계시가 끝이 난다. 이후의 구절은 이 예언과 계시가 참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광경이 성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자.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⁸⁾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7)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Revelation, p.268.

8)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땅을 창조한다

(사65:17~25)

연 창 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사65:17~18)

○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구절은 신적인 영감의 표현으로 이후 신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지상에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죽은 다음의 저세상의 나라일까요. 신천신지는 계시록의 “천 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천년왕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이 지상의 역사는 신이 활동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역사관입니다. 인간들이 역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나 인간은 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연으로 보이고 불가해한 것 역시 신의 활동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역사에서 신의 음성과 계시를 읽어내 말과 글을 남긴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성육화, 즉 인카네이션의 신비입니다. 메시아는 탈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계시하고, 자기 백성을 역사의 완성을 위해 부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존재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신적인 동시에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역사개입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럼 그 완성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이 출발이라면 바빌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새 예루살렘에서 신천신지를 만드는 것이 신의 역사 개입의 완성입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한 것처럼, 메시아에 의해 신천신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신천신지는 죽은 다음에 가는 저세상의 來世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즉今生에서 실현될 이상향입니다. 그곳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델리취)

신천신지는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신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신천신지는今生뿐만이 아니라 來生을 위해 준비된 곳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22장은 來生의 신천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비록 고통스럽게 보이고 삶의 고통 또한 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신천신지가 심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를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할 것이니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백 세에 죽는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으로 여기고
백 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사65:19~20)

○ 신천신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억울한 자의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죄 없어 보이는 유아가 죽고,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신지는 고통과 눈물이 없고 백세 이상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이상향입니다.

구약의 구절은 내세 관념이 희박하여 현세적인 삶의 표현으로 신천신지의 삶을 묘사하고, 신약은 내세에의 관념이 강해 (계시록21~22장에서 보듯) 영원한 내생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계시록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해 주신 새로운 예루살렘이 바로 신천신지입니다.

내 백성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포도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사65:21~22)

○ 이스라엘 백성은 약소국이고 연약한 백성이기에 거주할 집도 없고, 포도 농사의 수확물을 빼앗기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수천 년간 이웃한 나라와 민족들이 강대해지면 쳐들어와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

해 종살이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신지가 도래하면 본향 땅으로 돌아가 오래도록 장수하고, 농사지는 수확물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 즉 만유와 만물이 서로 공존하는 이상향이 신천신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의 요한에게 영감을 주어 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인간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사65:23~25)

○ 신천신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너와 네 후손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고, 동물들끼리도 먹고 먹이지 않는 이상향이 신천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 적대감, 악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메시아의 사역이 65장의 이 부분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신천신지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전의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창조세계

가 신천신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살려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가짐과 실천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존의 죄악된 습성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 나가게 됩니다. 신천신지의 변화는 나의 심령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는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실수와 넘어짐, 깨어짐의 아픔도 무수히 있게 마련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라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워나갑니다. 시련과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깨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생의 낭떠러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넘어지면 일어설 힘이 생기고, 깨어지면 상처가 아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순간순간 우리의 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그곳이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이 혼탁해 보이고 삶이 어려워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자 감사의 길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 결국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땅은 바로 나의 인생길입니다. 내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 소전(小傳) (4)

최 정 일

1. 예루살렘 사도회의(기원48년·49년 또는 50년)

(1)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수년간 계속된 키프로스와 소(小)아시아에의 그들의, 제1차 전도여행[기원47년경] 뒤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돌아가서 다시 복음전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평화적 사역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신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들에게, 「만일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들의 구원은 보증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2)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1) 메시아에의 약속은 오직 유다 민족만을 위해서 선포되었다. 따라서 유다 민족의 구성원들만이 그 약속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만일 이방인들이 그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열린 유일한 길은 그들이 유다민족이 되는 것뿐이다.

(3) 이 추론은 흠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주장은 이방세계의 복음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이방인이 그리스도신자가 되려면 먼저 유다 민족에 편입되어야 한다면 이방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신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바울 사도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거짓형제들의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다. 왜냐 하면 비록 믿음의 선조(족장:특히 아브라함·이삭·야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인에게 내려지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졌고 정말로 온 세계(인류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4) 바우어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 배타주의적 입장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12사도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단언했고 르낭도 프랑스에서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우어도 이 배타주의적 주장은 도행전 15장에서 부정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사도행전 15:5에서는 이 배타주의적 주장을 하는 자들을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신자가 된 자들」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행 15:5 -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신자가 된 사람 몇이 나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일러주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5) 그러나 바우어[독일의 문헌비평학자]는 대담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즉 저자인 누가는 바울 사도와 12사도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숨기고 후대교회가 이 인물들은 상호 최선의 이해하에 살았다고 믿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우어는 이런 중대한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나는 갈라디아서 2장(특히 1-9절)의 기사를 더 신뢰한다」고만 말한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로마서와 관련된 결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사도의 설명을 먼저 보고 그 뒤에 그것을 사도행전의 기사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6) 갈라디아서 제2장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논쟁의 결과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한다.[갈 2:1] 로이쓰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이다」라고 한다. 한편 르낭은 「시리아의 안디옥 에클레시아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를 불신했다」라고 추론하나 르낭의 이 추론보다는 로이쓰의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

(7) 또한 바울 사도는 디도라는 젊은 이방인 개종자를 예루살렘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시리아의 안디옥의 그리스도신자의 참

적은 자유의 원칙을 힘차게 단언한 것이다. 이 대담한 결정은 르낭이 단언하듯 만일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주저하고 있었거나 바리새파 유다교 출신(유대인) 개종자들의 편을 들고 있었다라면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8) 바울 사도는 그 뒤에[갈 2:2] 자신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중심인 물들과 가졌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하여 말한다.[갈 2:2 -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른바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기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들인 게바와 요한이었다[갈 2:9].

(9) 바울 사도의 설명은 율법 의식인 할례의 강제가 없는 복음의 선포에 대한 것이다. 갈 2:6에는 이렇게 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제안을 추가한 일은 없습니다.” 즉 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도 바울 사도의 가르치는 방식에 아무것도 추가하는 것이 없었다. 우덴 프로 사네펜도(οὐδέν προσανέθεντο=nothing added)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베드로와 요한과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완전히 충분했음을 나타낸다.

(10) 갈 2:4에서는 이렇게 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여들었습니다.” 즉 거짓신도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는 에클레시아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강요와 관련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원칙[외적 의식(儀式)과 관련된 절대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할례를 받기를 요청하는 것에 순응했었다. 고전 9:20에는 이렇게 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

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11) 그러나 갈 2:1-10에서 예루살렘회의에서의 디도의 할례 강요문제는 복음의 자유의 원칙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바울 사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디도는 할례받지 않고도 이미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의 성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르낭은 이 갈라디아서 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즉 르낭은 이 기사에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굴복했고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이 기사의 문맥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12)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반드시 바울사도가 이 거짓 형제들의 할례 강요를 거부한 것을 지지했음에 틀림없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와 바울 사도 간에는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와 바울 사도 간의 유대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 대한 사도직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예루살렘의 주요 3인이 인정했듯이 베드로가 유다인에 대한 사도직을 하나님께 받은 것도 동시에 인정된 것이다. 갈 2장 7-9절입니다. 도리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13) 이렇게 전체 에클레시아의 5인의 대표자들은 서로의 전도영역을 분담하면서 복음전파에서의 단합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만일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3인의 지도자들이 진실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이 단합과 상호인정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14) 바울 사도는 갈 1:8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 갈 5:2-4에서 나온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15)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말했는데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정했을 것이다(갈 2:7-8). 이제 할례에 관해서는 이방인의 자유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다만 경직된 유대주의자들만이 그들의 완고함을 고집해서 소수파가 되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이 복음선포의 노력에 대하여 계속하여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되어갔다.

(16) 바울 사도의 설명으로부터 유대교 출신(=유대인) 개종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기는 어렵다. 이 점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전적으로 침묵하는 점에 비추어 그 문제는 제기된 바가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어서 이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성급한 해결책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에 비추어 유대교 출신(유대인) 그리스도신자들이 오래된 관습 즉 율법준수를 계속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7) 이제 사도행전에 쓰여진 설명을 보기로 한다. 사도행전을 쓴 복음사가 누가는 그 계시 즉 바울 사도가 사도들의 관할영역에 대한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계기를 말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특히 베드로 사도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에 의하여 문제가 논의되는 총회(신자들의 공적인 전체회의:plenary assembly of the church)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는 사(私)적 회의(private conference)의 모습과 다르다. 로이쓰는 이 두 모임의 차이점은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측 지도자간의 사적인 대화(private talk)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공적 모임(public meeting)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 15:2에는 이렇게 있다. 결국 에클레시아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다른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했다.

(18) 문제의 핵심은 사적 모임에서 준비되었고 그것이 총회에서 공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이다. 즉 사도행전의 기사는 갈라디아서의 보충기사이다.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사적 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다.

(19) 복음사가 누가의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연설들은 이방인의 해방과 자유에 대하여 똑같이 결론짓는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갈 2:6에서, 그 주요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것도 따로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행 15:13-19에서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

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교 출신(유다인)그리스도신자들에 대해서는 야고보는 율법의 준수에 일치하게 살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침묵 중에 동의한 내용이다.

(20)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세 가지를 금할 것을 요청한다. 즉 ①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고 ②피 또는 목졸라 죽인 짐승을 먹지 말며 ③음란한 행동을 하지말라는 것이대[행 15:29-30]. 그런데 여기서 행 15:30에서의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르게 사는 것의 해석이 문제된다.

즉 이 요구는 바울 사도가 그들은 나에게 아무 것도 더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모순되는지 하는 문제이다. 결론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편지는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끝맺기 때문이다.

(21) 만일 이 요구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추가된 구원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면 그 표현은 매우 달랐어야 한다. 즉 이 요구들은 에클레시아의 건전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것들임에 불과한 것이다. [The phrase used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if it had been meant to express a condition of salvation added to paul's teaching] 사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의 양대 진영 간의 일치를 위하여 치른 대가였다. 이 몇 가지 조건들이 없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들의 삶은 유대교 출신(유다인)그리스도신자들이 보기에는 계속 우상숭배로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철저히 악마의 유해한 영향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음행을 행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는 당시 이방인 사회(특히 다신교 사회인 로마제국의 풍습)에서는 이러한 음란한 행동이 마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전 6:12-20에서는 이렇게 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음행하는 자는 모든 탄 죄와 달리 제 몸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에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22) 바울 사도는 그릇된 자유개념에 맞선다. 특히 무질서한 성생활을 나무란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신자는 무엇이 우리를 사람다운 성장과 실현으로 이끄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일단 자유롭게 살아라고 그리스도께 속량받은 이상 그리스도신자는 자신의 육체를 노예화해서 성령의 성전인 자신의 육체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 그리스도신자는 그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신자는 자신의 몸을 귀중하고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무가 있다. 바울 사도는,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지 않고 주님을 섬기라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두 몸과 두 정서와 두 감정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상태이다. 성서는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계약을 남편과 아내의 결합처럼 보고 있다. 특히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신자에게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배경에는 당시 로마제국에서 이(異)교의 우상숭배의식(儀式)에서 극심한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타락한 사회상을 고려한 때문이다.

(23) 이 타협이 단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로서는 항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도 그 결론을 제시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도들은 단지 여건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모두가 현재상황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준수에서의 이방인의 해방과 자유가 유대교 출신(유대인)그리스도 에클레시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불가역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된 것이었다. 틀림없이 바울 사도는 이 결과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을 것이다. 비록 유대교 출신(유대인) 그리스도신자들이 여전히 암묵적으로 모세의 가르침에 복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율법의 준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원칙이 세워진 것이다. 즉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에 가입하는 데는 이스라엘 민족에의 편입(=이스라엘 민족과의 합체)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원하던 모든 것은 바로 이 사실 안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24)이렇게 레위 의식(儀式)[=할례]은 이제 「유대 민족의 단순한 민족적 관습」[the rank of a simple national custom]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유대교 출신(=유대인)그리스도신자들은 레위 의식에 계속 충실함으로써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그 밖의 사람들과의 연대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연대를 이어가는 데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의 전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수적 조건이었다[하나님께서 현재의 사물의 질서를 끝내시기까지는 (놀라운 신적 면제에 의하여)]. 바울 사도는 참으로 신중해서 이런 결과에 만족했다.

(25) 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 일반적 모습에 있어서 저명한 세 명의 학자들이 최근에(고대의 로마서강해가 나온 1880년경)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즉 바이체커, 하르나크 그리고 카임이 그들이다. 먼저 고린도 에클레시아에 대한 뛰어난 논문을 쓴 바이체커는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으로 머물렀고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에 자신들을 제한시켰다. 그러나 이 주요 사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를 철저히 인정했다는 점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의 종교적 삶과 그 중심은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않고 그러한 믿음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을 결코 자신의 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을 분명히 구별했고 그 구별은 언제나 그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을 중재자로 선정한 것이대갈 2:6-9.”

(26) 다음에 기원 2세기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하르나크는 이렇게 말한다. 시문서들은 한때 강력했던 분파가 여전히 자신을 견고히 지키는 마지막 거점이고 그 표어(암호말)는 유대교 출신(유대인)그리스도신자냐?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신자냐였다[튀빙엔 학파]. 그리고 그리스도교회의 형성에 미친 유대교 출신(유대인)그리스도신자들의 영향력은 이제부터는 근소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7) 마지막으로 카임도 그의 저서 「초대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와 복음사가 누가의 사도행전 간의 일반적 일치와 조화를 강조한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신자에게 부과된 조건들, 이 한 가지 점만 차이가 있지만 카임이 보기에는 사도행전에 기술된 그 조건들은 원래의 기사에 첨가된 하나의 주해일 뿐이다. 즉 카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와 12사도의 상호간의 일치된 태도를 말하고 있다.

(28) 결국 공정한 판단은 이레나이우스(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s: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로 불린다. 초대교회 교부. 기원 130-200년. 소아시아 스미르나 출생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에게서 배웠다. 그 후 로마에서 배웠고 프랑스 리옹의 주교가 된다[기원 178년]. 이단 그노시스

파와 논쟁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역설했고 동 갈리아(프랑스)지방에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저서로 영지주의를 비판한 「이단 반박:Adversus haereses」이 있다)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인정했고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겼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은 경건하게 모세가 제정한 율법규정과 관례를 따랐다.”

그러니 바우어의 영향 하에서 행한 르낭의 해석은 단순한 환상(공상)에 불과하다.

(29) 시리아의 안디옥에 돌아가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뛰어난 성도 중 한 사람인 실래[실라스]를[행 15:22 ; 행 15:40-41] 시리아와 갈리기아 에클레시아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회신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갔다.

2.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과 제3차 전도여행[첫째부분]

(1) 그 뒤에 곧 바울 사도는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골 4:10, 행 12:12,25]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제2차 전도여행[기원 48-52년 또는 기원52-54년]에 실라를 데리고 떠났[대행 15장].

(2) 성서 기사들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분열이 일부 비판자들이 주장 하듯이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지 근거도 보여주지 않는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서로 협력 했고 이 일치는 그들이 분열된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그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다.

(3) 바울 사도와 실라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가로질러 갔고 그 때 기원 1세기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를 방문했다. 바울 사도의 행선지는 아마도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개화된 지역이고 종교적·지적 중심지였던

에베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결정하셨다. 바울 사도의 목적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로 정해졌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야 이것을 알아차렸다.

(4) 이 두 복음의 선포자들(바울 사도와 실라)은 바울 사도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속주(屬州)에서 한동안 발이 묶였다. 갈라디아 속주는 할리스강(江)가에 있었는데 기원전 280년경 있었던 골 족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침략 후에 소아시아로 건너 들어온 켈트족의 후손이 살고 있었다.

바울 사도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에클레시아가 세워졌다. 갈 4:14이다.

“그 때에 내 육신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5)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들의 전도여행을 다시 계속했을 때 그들은 복음선포에 있어서 어떤 내적 방해에 의하여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 계획없이 에게해(海)에 접해 있는 드로아에 당도했다. 드로아에서 의문은 해소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상(異像, 환시)을 보았는데 「에게 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이상(환시)이었다. 바울 사도는 이 결정적 발걸음을 실라와 디모데와(디모데는 라케오니아에서 바울 사도와 알게 됨) 그리고 의사인 누가와 함께(누가는 그 때 드로아에 있었음) 디디었다. 이것이 이른바 본문의 기사 즉 행 16:10-17(제2차 전도여행과 빌립보 방문 등)과 20:5-21(제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장로들과의 고별), 27:1-28:16(로마황제에의 상소와 로마 압송)에 대하여 적어도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6) 르낭은 아무 근거없이 누가가 마케도니아(그리스)혈통이라고 단언하나, 고데는 누가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고 보며 이는 클레멘타인 인정(認定)과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팔레스타인 가이사랴 태생

의 신학자: 기원 263-339년; 가이사라 감독. 교회사의 아버지. 가이사라에서 스승 팜필루스에게 배웠다. 307년 팜필루스가 순교당하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314년 가이사라로 돌아와 감독이 되었다. 저술로 「교회사」가 유명하다. 동 저서에는 기원 323년까지의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콘스탄틴 전」도 썼다.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 논쟁(기원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온건한 중도파였다가 후에 아타나시우스파에 가담하여 정통교리 확립에 공헌했다. 그는 오리겐(오리게네스:Origenes=Origen: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신학자. 성경주석 학자: 기원 185-253년; 클레멘트에게 배웠다. 부친은 알렉산드리아 대학에서 헬라 문학을 가르치다 202년 순교했다. 211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되어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히폴리투스의 설교를 들었고 215년에 가이사라로 가서 설교와 전도를 위하여 장로 안수를 받았다. 231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되어 가이사라에 망명하여 교리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250년 박해때 갖은 악형을 당하고 풀려나 2년 뒤 두로에서 죽었다. 다방면에 걸쳐 석학이었고 구약성서 본문 비평과 주석에 뛰어났다. 특히 명저인 「헥사플라」[Hexapla: 6개어 대역성서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 4 가지 헬라어성서 본문(70인역 교정역 등)]은 당대 최고의 명저로 손꼽힌다. 오리게네스의 신학은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을 조화·융합시킨 것인데 그는 성서의 비유적(=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했다. 니케아 공의회(기원325년) 이전까지 당대의 최고신학자로 추앙받았다. 다만 영혼선재설[인간의 영혼이 전세에 존재했거나 물질적인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과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오리겐의 그리스도론은 비판받고 있다)을 변호하는 옹호문을 쓰기도 했다는 견해이기도 하다.

(7) 잠깐사이에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암피폴리스,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에클레시아가 세워졌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도시들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사주에 기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의 경쟁자라고 주장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박해에 쫓겨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아테네에 도착했다.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는 아레오파고스회의(고대 아테네에서 귀족정치 초기에 있었던 로마의 원로원에 해당하는 회의. 이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음. 기원전 5세기 중기 이후 권위를 상실함)에서 그의 복음을 설명했다.

(8) 그 뒤에 바울 사도는 약 2년간 고린도에 눌러앉았고 그동안 아카이아(아가야) 속주의 수도인 고린도에 그의 가장 번창하는 에클레시아 중 하나를 세웠다. 우리는 고후 1:1에서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대도시인 고린도 주변의 시골 지역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고후 1:1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 형제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9) 그리스에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끝난 뒤에 바울 사도는 갔다. 행 18:18에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서 떠나기 전에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겐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한다.

민 6장에서 관련있는 부분을 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야훼께 헌신하기로 하고 나지르인 서약을 했을 경우에 나지르인 서약을 지키는 동안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지르인이 지킬 법은 이러하다.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깎는다. 그리고 그 봉헌한 머리털로 친교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것이 나지르인이 지킬 법이다.

(10) 이 서원이라는 종교적 행위는 바울 사도의 영성과 모순되는가? 딤후 6:11-19에는 영성에 대하여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11) 사도행전 21장은 바울 사도가 갖가지 복잡한 사태에서 외적 성격의 것에 양보한 것을 잘 보여준다. 행 21:7-29은 이렇게 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는 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다음 날 우리는 바울을 따라 야고보를 찾아갔다. 원로들은 바울의 이방인 전도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데 골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모세를 배척[배반]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고 유다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터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삭발을 하게 될 것이고 유다인들은 당신에 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리어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튿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예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의 기간이 끝나는 날짜 곧 각 사람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다. 칠 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난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이 자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나 우리 동포와 율법과 이 성전을 반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서원이 그의 영성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12) 제2차 전도여행의 끝 무렵에[기원 52년경]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클레시아에 인사한 다음 이방 전도의 요람지(발상지)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갔대행 18:18-22].

(13) 바울 사도는 거기서 얼마동안 지낸 뒤 다시 제3차 전도여행[대략 기원 52년부터 56년]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기아 지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성도들을 격려했대행 18:23-21:17].

제3차 전도여행에서는 그 뒤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티란노스] 학원[=서원]에서 날마다 성도들과 토론하며 2년을 계속[행 19:9]했고 그 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두 번째 방문했다. 그 뒤 빌립보[필리피]를 떠나 드로아[=트로아스]에 갔다가 배를 타고 밀레토스[=밀레도]에 도착했고 에베소 에클레시아의 원로들을 밀레토스에 불러 고별인사를 하고 두로[티로]를 거쳐 가이사랴[카이사리아]에 이르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희망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예배)

(시편 123편)

한 정 주

제123편(표준새번역),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 1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 2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 3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 4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1. 톨슨성경

본시에는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시인의 애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종’ 또는 ‘여종’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고 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반면 주인은 종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시인은 이 비유를 통해 성도의 안전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만 가능함을 교훈하고 있다.

4절의 ‘평안한자’는 부자(富者)를, ‘오만(교만)한 자’는 권세자를 의미한다.

2. 유희세, 123편 희망의 눈

- 1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당신을 향하여 내 눈을 내가 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 2 보라!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향하듯이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향하듯이
우리의 눈은 우리 하나님 아하웨를 향한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실 때까지.
- 3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하웨여! 우리에게 은혜를.
모욕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 4 너무 오래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쳐 있었습니다.
천박한 사람들에게 의한 멸시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의한 모욕이.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40쪽)

3. 우치무라 간조, 희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을 희망이라 말한다.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을 신앙
이라 말한다. (희망과 신앙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실망이란 없다. 그를 믿는 사람에게 또한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실망은 불신이다. 신앙은 무한의 희망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영구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과 희망에서)

실망은 희망을 낳는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자기

에게 실망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땅에 실망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되며, 이 세상에 실망하여 내세를 바라보게 된다. 실망이여, 실망이여! 실망은 희망에 이르는 길이다. 실망하여 절망하지 말 것이다.

마침내 살 희망마저 끊어져 버렸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후1:8-9)

고 바울은 말했다. 실망은 우리를 희망으로 내쫓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망(失望)과 희망에서)

(우치무라간조전집 제3권, 설우사, 169쪽-174쪽)

4. 맺으며

유희세 선생님은 시편 123편의 제목을 ‘희망의 눈’이라고 붙이셨다. 제목이 좋아서 4절에 불과한 이 짧은 시편을 공부하기로 하였고 우치무라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서 ‘희망’을 주제로 한 몇 편의 글 중 일부를 위에 소개하였다.

이 시편의 배경은 3, 4절에 멸시와 조롱, 모욕에 찬 생활이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던 때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내용이 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알려주었다. 예배의 참 뜻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예배하다’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헬라어사전 4352)이다. 이는 프로스와 퀴네오의 합성어이다. ‘프로스’(헬라어사전 4314)는 ‘~을 향하여, ~의 가까이에, 곁에, 옆에’이고, ‘퀴네오는 퀴온(헬라어사전 2965)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개(dog)’라는 뜻이다. 즉 개가 주인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세이다. 이 모습을 상상해보라! 무엇을 해줄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려는 충직한 개의 모습. 본 시편 1,2절의 ‘내 눈을 내가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참 예배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우리 조상은 이 산(그리심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지를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4:20-24)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또 ‘영과 진리로 드린다’ 함은 형식과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과거에 교회 출석할 때나 무교회에 와서도 입버릇처럼 줄곧 예배드린다고 했다. ‘예배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하다’가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한 시간에, 외형적인 건물에 참석해서 어떤 의식과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언제,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내 눈(내 마음과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참 예배인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삶이 곧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신대로이다.

다음은 ‘희망의 눈으로’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야 한다. 이때에 긍정의 힘과 에너지가 발산되어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다함께 희망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가자.

복음서가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의 마지막 가사가 본서의 내용과 딱 들어맞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므리왕

조 규 철

성경 (왕상16:25~26, 공동번역)

25. 오므리는 어떤 선왕들보다 훨씬 더 아합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6.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아 같은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에 빠뜨려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아합을 크게 노하시게 하였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왕 때에 남북이 분단되어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하여 바뀝니다. 오므리왕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로보암(22년) - 나답(2년)

1. 바아사(24년) - 엘라(2년)

1. 시므리(7일)

1. (디브니/오므리의 경쟁, 4년)

1. 오므리(12년) - 아합(22년) - 아하시야(2년) - 요람(12년)(여호람, 아하시야의 동생)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는 모두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의 경우 그 아들대에서 왕조가 끊어진 것에 비해서,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을 배출하여 처음으로 왕조다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람(여호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입니다. (남 유다의 왕 중에도 여호람이 있음, 동명이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왕을 요람으로 표기함)

이들 여러 왕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의 사정과 몇 개의 도시 위치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주변 나라들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아람(현, 시리아)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접해서는 페니키아(베니게, 현 레바논, 두로, 시돈이 있는 곳)가 있습니다.

바아사는 처음에 아람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남쪽 유다 아사왕 때에 예루살렘의 북측에 근접해 있는 라마라는 성읍을 요새화 하려고합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남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작업 이었습니다.

이에 아사왕이 아람에 많은 뇌물을 보내자, 아람은 바아사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북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은 북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빼앗았는데 납달리지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바아사는 할 수 없이 라마를 포기하고 군대를 북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라마성의 북쪽지역에 위치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고 자기의 관할로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북 이스라엘의 수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집권 초기에 북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유서 깊은 도시인 ‘세겔’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여로보암은 무슨 일 때문인지 수도를 ‘디르사’로 천도합니다.

디르사는 여로보암-나답-바아사-엘라-시므리-오므리가 수도로 삼았는데, 시므리는 자기가 죽을 때에 궁궐을 불태워 버립니다. 오므리는 정권이 안정되기까지 디르사에 있다가 세멜이라는 사람 소유의 산지를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전 땅주인인 세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명명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는 나라가 망할 때 까지 북 이스라엘의 수도로 있게 됩니다.

다음은 ‘깁브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블레셋에 속해 있었는데, 북 이스라엘이 이곳을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공략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경우,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곳을 공략 중이었는데, 자기 휘하에 있던 바아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장소입니다.

오므리의 경우에도 깁브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오므리는 남부군 총 사령관으로서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하여 깁브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엘라왕은 수도 디르사에 머무르면서 궁내 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방위사령관 쯔 되는 직책의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엘라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때 시므리는 엘라왕의 가족, 친척들 뿐 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깁브돈에 있던 오므리 진영에 수도 디르사에서의 시므리의 반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진중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오므리는 군대를 회군하여 가서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시므리는 자기가 오므리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그 불속에 뛰어들어 죽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으로 군림한 기간은 고작 7일이었습니다.

깁브돈과 디르사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고, 디르사에서의 쿠데타 소식이 깁브돈에 전해진 시간, 깁브돈에서 오므리 군대가 디르사로 이동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므리는 저항다운 저항 없이 곧바로 무너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므리는 죽었으나 오므리의 또 다른 경쟁자로 디브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디브니는 북쪽 아람을 견제하던 북부군 총사령관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도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디브니와의 각축

은 4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디브니가 죽어서 오므리가 완전하게 북쪽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꼭 가문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런데 오므리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가문 이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것이 디브니와의 4년간 경쟁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므리는 6년을 디르사에 있다가 정권이 안정되자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합니다. 산지에 있는 사마리아는 천연의 요새이기도 하였습니다. 먼 훗날, 북 왕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에 사마리아는 3년이나 버티다가 함락되었으니까 적의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합리적이었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일단 아람과는 대치,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아람과 전쟁을 하였는데, 패하여 성읍 몇 개를 빼앗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상20:34)

오므리는 아람을 견제하기 위하여 페니키아와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기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엣 바알'의 뜻은 'with 바알', 즉 '바알과 함께', '바알은 '주',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주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과연 바알 종교의 본산지에 있는 왕다운 이름입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우상)과 함께, 제사장들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오므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남쪽 유다의 왕은 아사였습니다. 남 왕국은 남북 분열 이후, 르호보암(17년) - 아비얌(3년) - 아사(41년),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아사왕의 말기에 해당됩니다. 오므리는 남쪽 유다와 경쟁하거나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공존을 택했습니다.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아합은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합이 왕위에 있을 때 남쪽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합은 자기 딸 아달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켜서 남북 화해 시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므리는 통치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12년) 북 이스라엘의 국가체제를 확립하였고, 나라를 안정시켰으며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오므리는 모압을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았는데(암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 이는 그의 아들 아합왕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왕하3:4~5)

후일에 앗시리아 기록에 북 이스라엘 영토를 ‘오므리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예후에 대해서도 ‘오므리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오므리는 국제적으로도 그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는 그의 세상적인 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그를 오직 신앙적인 면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아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바알 신앙의 본산지인 시돈과 동맹을 맺어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킨 결과 북 이스라엘에는 바알 종교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선왕들보다 훨씬 더 아합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왕상16:25)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 누가 지키는가?

최 제 헌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공화국 전투 찬가)

작사·작곡 Julia Ward Howe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He hath loosed the fateful lightning
of His terrible swift sword: His truth
is marching on.

Chorus: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on.
I have seen Him in the
watch-fires of a hundred
circling camps,

나의 눈은 주님께서
도래하는 영광을 보았나니
쌓아 두신 진노의 포도
짓밟으며 오신다

공포의 채검 휘두르며
운명의 번개 내리치노라
주의 진리가 나아간다

(후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가 나아간다

나는 수백 곳의 야영지 모닥불
속에서 주님을 보았네

They have builded Him an altar in the evening dews and damps I can read His righteous sentence by the dim and flaring lamps: His day is marching on. Chorus: I have read a fiery gospel writ in burnished rows of steel As ye deal with my contemnners, so with you my grace shall deal Let the Hero, born of woman, crush the serpent with his heel, His truth is marching on. Chorus: He has sounded forth the trumpet that shall never call retreat He is sifting out the hearts of men before His judgment-seat Oh, be swift, my soul, to answer Him! be jubilant, my feet! Our God is marching on. Chorus: In the beauty of the lilies Christ was born across the sea,	병사들은 저녁 이슬 습기 속에 주님께 제단 쌓았네 나는 일렁이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서도 주의 의로운 판결 읽을 수 있노라. 주의 날이 다가오나니 (후렴) 나는 빛나는 강철 줄로 쓰여진 불타는 복음을 읽었네 너, 나를 욕보이는 자를 대적했으니, 나의 은총 또한 너와 함께 하리라 여자가 낳은 영웅이 발꿈치로 뱀을 짓밟게 하라 주의 진리가 나아간다 (후렴) 주께서 결코 후퇴치 않을 나팔을 부셨네 주님의 재판석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걸러 내시리라 오, 내 영혼아! 주님께 어서 빨리 답하라. 기뻐하라, 나의 발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나니 (후렴) 백합화의 아름다움 속에
---	--

With a glory in His bosom that transfigures you and me As He died to make men holy, let us die to make men free, While God is marching on. Chorus:	그리스도가 바다 건너 탄생하셨도다 그분의 가슴에 너와 나를 거룩하 게 하시는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거룩케 하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사람의 자유를 위해 죽으리라. (후렴)
이 노래는 남북전쟁 때, 북군의 군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찬송가“마귀들과 싸울지라 (348)”로 그리고 행진곡이나 응 원가로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새해에는 반드시 들리는 “조국찬 가”로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익숙한 노래입니다. 원스턴 처칠의 애창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607 년 영국의 최초식민지 제임스타운이 버지니아주에 건설됩니다. 그
리고 1620 년 9 월 16 일 영국 플리머스(Plymouth)에서 메이플라워호가
102 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 메사추세츠주 플리머스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승객들은 영국 성공회의 탄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공동
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주한 청교도들이었고 일부는 북미대륙의 풍부한
자원개발을 위하여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0 여 년이 지나 1775 년 4 월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양도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생명권을 갖고 있다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었고 1783 년 9 월 식민지가 승리하면서 미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아직 남부 사람들은 독립선언문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
났으며”라는 문장의 의미를 간과하고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을 함께했던 것
입니다.

신대륙에 아프리카 노예가 들어온 것은 1526년 스페인에 의해 플로리다에 온 게 최초였습니다. 이후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이 모두 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강제이주 시켰습니다. 해상으로 이주 도중 50~70%가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2~3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고향에서 붙잡혔고 그야말로 죽다 살아남은 천만 명이 미국에서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1859년 급진적 노예 해방론자 존 브라운이 흑인들을 무장시켜 노예 해방선언을 할 목적으로 연방무기고를 습격하였으나 실패하여 12명의 노예 해방군이 사망하고 존 브라운도 붙잡혀 그해 12월 전격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간의 갈등이 깊어져 남측과 북측 모두 노예 제도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전국적인 대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북부의 산업은 제조업이 중심이었고 남부의 산업은 목화재배에 노예를 이용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것이 주업이었는데, 1861년 노예반대론자인 링컨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남부 7개주가 반발하여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남부연합의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노예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861년 4월, 남북간 내전이 발발하여 1865년 4월 4년간의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납니다만, 이 내전으로 죽은 사람이 62만 명, 부상자 20만 명, 실종자 8만 명입니다. 이 중 북군의 사망자 36만 명, 남군의 사망자 26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미국 역사상 어떤 전쟁으로도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적이 없으며 이마저도 많이 누락된 숫자로 추정된다니 얼마나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이었을까요? 참고로 각 전쟁에서 미군의 사망자 숫자는 2차세계대전 29만5천 명, 베트남전쟁 5만8천 명, 1차세계대전 5만4천 명, 한국전쟁 3만4천 명의 순입니다.

그러면 남북은 무엇 때문에 이런 참혹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북부에는 새로 독립한 국가를 유지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만, 남부에 그 넓은 목화밭과 옥수수 밭을 두고 노예가 없어지는 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부의 백인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노예들이 농장에서 일하여 나온 수확으로 주인의 금고에는 돈이 꼬박꼬박 쌓입니다.

아침이 되면 노예들이 세탁한 옷을 입혀주고 아침 식사를 차려줍니다. 이웃에 타고 갈 마차를 관리하고 태워다주고 기다려 주고 호위까지 해줍니다. 백인주인이 할 일은 사교계에 참석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남부의 비옥하고 드넓은 땅은 지상낙원이고, 남부에서 백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런 남부의 정서를 잘 나타낸 남군의 대표적 군가로서 전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Dixie's land의 당시가사(이후 개사 되었음) 주요부분을 먼저 돌려볼까요?

나는 멀고 먼 딕시에 있으면 좋겠어. 딕시를 위해 살고 딕시를 위해 죽는 내 주장을 지킬 거야. 연방의 꼬마들은 용감하고 대담하지만 그들은 다 팔려버릴 것 같아, 보아라 보아라 딕시랜드를

("I wish I was in Dixie, away, away! In Dixie's land I'll take my stand, to live and die for Dixie, Away, away! Away, away! The Union boys are brave and bold, But I'm afraid they'll all be sold, Look away! Look away! Look away! Dixie Land!")

Dixie는 미국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859년, 대니얼 디케이터 에밋 (Daniel Decatur Emmett)이 발표한 이 노래가 남북 전쟁시 남부 연합군의 행진곡으로 사용됨으로써 딕시라는 호칭이 퍼졌고,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비공식 국가로도 애창되었습니다.

남군은 “남부연합”, 북군은 “미연방”이라고 호칭하였으므로 “연방 꼬마들”은 북군을 지칭합니다. 흑인노예 팔리듯 “북군은 한방에 팔려 금방 사라질 거야”라는 비유로 의기양양한 노래입니다.

남군의 Dixie 와 대비되는 북군의 군가,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이 오늘 살펴볼 노래입니다.

작곡자 줄리아(Julia Ward Howe)는 남북전쟁에 참전한 남편의 편지를 읽고 영감을 받아 작곡했는데,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화국”Republic”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미국의 나라이름이나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념입니다)

1 절: “진노의 포도”는 노예제로 인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즉, 전쟁의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포의 쾌검”은 북군을, “운명의 번개”는 하나님의 응징 곧 정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2 절: “야영지의 불”은 전쟁이 진행중인 것을 나타내며 “저녁이슬 습기 속”은 전쟁의 어려움을,

“제단을 쌓았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나타냅니다.

“흐릿한 호롱불~읽을 수 있다”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3 절: “불타는 복음을 읽었네”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함을 나타내며, “나를 욕보이는 자를 대적~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뜻이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영웅”은 그리스도를 뜻하며 우리는 그의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4 절: “결코 후퇴하지 않을 나팔”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흑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 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 절: 그 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으나, 이방인인 우리를 거룩케 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이방인 즉, 흑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죽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인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확신과 함께 주의 길을 따르며 목숨 바치길 원하는 이들의 군가, 감동 없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군가이래 36 만명 이상의 북군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미국의 16 대 대통령 링컨(Abraham Lincoln)은 1863 년 노예해방령을 선포하고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1865 년 노예해방 반대론자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이 노래의 “죽게하소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동안”이라는 후렴구 가사는 요한복음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노예의 자유를 위해 백인 36 만 명이 이 노래대로 목숨을 바쳤던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을 국가처럼 부르며 노예해방을 위한 희생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이라도 역시 그랬을까요? 그야 당연히……. (이하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며 생략합니다.)

미국은 평화적인 나라이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에는 국민들이 단합하여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잇달아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지 미국이 판단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정의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1898 년 식민지시대, 필리핀과 스페인의 전쟁에 끼어들어 스페인을 함께 몰아내고 슬며시 주저앉았다가 20 만 명의 필리핀인을 죽이고 1946 년에서야 독립시킨 흑역사를 제외하면, 이후 미국은 나름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1 차세계대전(1914.7~1918.11): 70 개국이 참전하여 1,600 만 명이 사망한 전쟁으로 미국은 호전적인 독일민족주의로부터 유럽을 구하기 위해 1917 년 참전하여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공산주의와 파시즘 등 위험한 정치이념이 등장하였고 과중한 전쟁배상금은 제2 차세계대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차세계대전(1939.9~1945.9):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파시스트 국가들이 유럽,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로 전장을 확대하여 6,000 만명이 사망한 전쟁입니다. 미국은 1 차세계대전의 참혹함과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기에 참전의사가 없었지만,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파시즘을 패퇴시켰지만 공산주의가 발호하며 새로운 전쟁을 잉태합니다.

한국전쟁(1950.6~1953.7):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기습침략하여 200 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이며, 당초 미국은 아시아 변방인 한국 전쟁에 참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만, 공산당은 계급투쟁으로 세계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진격이 너무 빨라, 이에 놀란 미국은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전

체가 공산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게 되었고 이틀만에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수백만의 사상자를 남긴 채, 불완전한 휴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전쟁(1954~1975): 한국전쟁과 판박이의 원인으로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나 1~2백만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미군도 1차대전보다 많은 58천명의 전사자를 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베트남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주민들의 민심은 북베트남에 기울었고, 이런 상황에서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중도에 포기하고 철수했는데,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을 부르며 참전했던 젊은이들은 돌아온 고향에서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람보”에서도 “돌아온 전쟁영웅”이 겪었던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2003~2011):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미국의 최고층 쌍둥이 빌딩인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시켜 3천여명을 죽인 악마적 사건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지목했고 전쟁을 통해 체포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만, 이 전쟁으로 이라크 민간인 1~2백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쟁의 정당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전쟁(2001~2021): 911 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 아프간측 11만 명, 미군 2,461명이 죽은 미국의 최

장기인 20년 전쟁이었으며, 알카에다에 복수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지만 탈레반에 다시 빼앗기고 미군은 도망치듯 철수해야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 경제력을 가진 미국은 이렇게 총 여덟번의 큰 전쟁을 치렀고, 식민지전쟁을 제외, 일곱번은 나름 “명분있는 전쟁”이었는데 무승부인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승지위패 (勝之爲敗), 즉 이겼으나 진 전쟁이었고, 큰 희생만큼 인류역사에 빛난 전쟁은 남북전쟁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정의를 판단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외에 전세계 모든 정의의 전쟁에서 정의가 구현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민간인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의라는 이름을 위해 전쟁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역시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이 옳은 것인지 인간이 판단하지만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없기에 이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쉬워지는 뒤숭숭한 시절입니다.

부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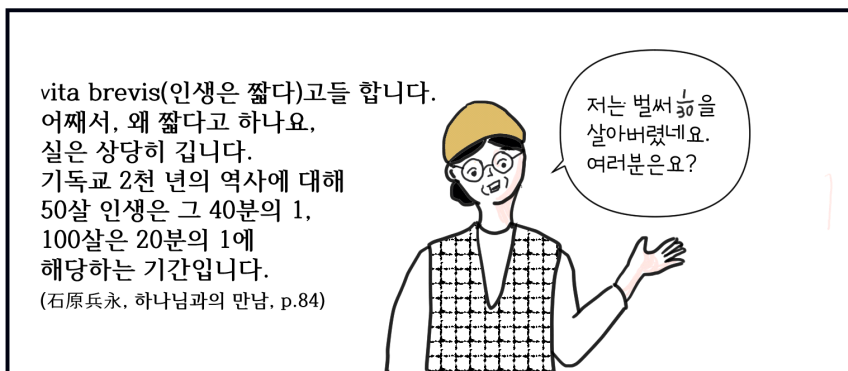
● 편집자 주 : 이글에서 말썬한 ‘정의를 위한 전쟁’에 관한 최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평화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전쟁은 없다’며 초기의 의전론(義戰論)을 폐기하고, 절대비전론(絶大非戰論)을 주장했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말씀을 새겨야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2천 년의 의미>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144:3)

2024 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1. 일시 : 2024년 4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4월 28일(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2.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문당 환경농업 마을)
3. 전화 : 041-631-3537, 010-4591-4438
4. 참가비 : 1) 1인 50,000원
강당 대관료(1만5천원), 교재비(5천원), 식사(3식, 3만원)
2) 숙박을 하시는 분은 20,000원 추가입니다.(3인실 기준)
3)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
5. 참가 신청 : 3월 10일까지
 - 각 집회 대표에게 말씀해주시거나,
 - 운영자 손현섭(010-2060-5534)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6. 참가비 수납
 - 미리 입금 : 농협 352-1396-3854-73 한정주
 - 현장에서 내셔도 됩니다.
7.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집회 장소에서 약 100m 인근에 어린이 자연환경 체험장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빵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만 2세 이상 초등학생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하여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첫날 오후, 둘째 날 오전 두 차례 진행합니다. 비용은 주 최측에서 부담하오니 마음 가볍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1. 한주혜 양 결혼

한병덕 선생님과 김명자 사모님의 둘째 딸 한주혜 양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여쁜 두 젊은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이니 많이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부 한주혜, 신랑 이준원

때 : 2024년 3월 16일(토) 12:30

곳 : 셀럽앤어셈 다이아올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02-545-2222)

지하철7호선 학동역 10번출구/수인분당7호선 강남구청역 3번출구

2. 고 조명한 교수님의 유고집 ‘로마서의 이해’ 출판

“성경 연구는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신도에게 일상화되어야 마땅하지만, 실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서 성경공부의 경지에 들어야 한다.”고 평소 말씀하셨던 그 결과물인 듯하여 반갑습니다. 따님이신 조보라미 님의 수고로 후배들에게 귀중한 책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한국성서신우회보 배부

한국성서신우회(회장 한만하) 주최로 다녀온 일본방문 참가자들의 소감문과 성서신우회 회계 보고 등을 책으로 묶어 3월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회비 후원 : 카카오�뱅크 7979-83-81239 한국성서신우회)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문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10호 2024년 3월

인	쇄	2024년	3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애 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